

2018 년 12 월 1 일
대중을 위한 메시지

저는 (모린) 또다시 하느님 아버지의 성심이라고 알게 된 큰 불꽃을 봅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자녀들아, 논란은 사탄의 전형적인 특징이다. 그자의 혼란의 손가락은 진실을 숨기는 데 있다. 공정한 결론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인내와 정직이 요구된다. 그러니 정치와 종교계에 존재하는 수많은 논란에 대해 놀라지 마라. 사악한 자는 이런 식으로 사람들을 현 순간에 묶어둠으로써 자신에게 유리하도록 시간을 가로챈다.”

“진리가 실현되기까지 몇 년의 세월이 걸리는 경우가 가끔 있다. 또 진리가 밝혀지지 않아서 논란이 해결되지 않는 경우도 가끔 있다. 어리석게도 어떤 논란이든 그것이 오직 인간의 문제라고만 생각하지 마라. 사탄은 가능한 한 오래 진실이 드러나지 않게 하려고 애쓴다. 그자는 자신이 벌여놓은 논란들 중 하나가 화제가 되어 정부가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정부의 발을 묶는 것을 매우 좋아한다.”

“요즘, 특히 너희 나라(미국)에는 너희 대통령(트럼프)을 약화시키고 심지어 그를 탄핵하기 위한 사악한 암류(暗流)가 작용하고 있다. 그러나 그들은 성공하지 못할 것이다. 너희 대통령은 진리를 옹호하며, 나의 이름을 앞에 내세워 인정받게 하고, 이 위대한 나라를 하느님 아래라는 본연의 위치로 되돌려 놓고 있다. 악은 언제 어디서나 그에 대한 신임을 떨어뜨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자에게 관심을 두지 마라.”

“이 현 정부가 제공하는 건전한 지도부 아래 일치하여라. 나를 신뢰하여라.”

+ 성경 구절 독서 (에페 6:10-17):

끝으로, 주님 안에서 그분의 강한 힘을 받아 굳세어지십시오. 악마의 간계에 맞설 수 있도록 하느님의 무기로 완전히 무장하십시오. 우리의 전투 상대는 인간이 아니라, 권세와 권력들과 이 어두운 세계의 지배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령들입니다. 그러므로 악한 날에 그들에게 대항할 수 있도록, 그리고 모든 채비를 마치고서 그들에게 맞설 수 있도록, 하느님의 무기로 완전한 무장을 갖추십시오. 그리하여 진리로 허리에 띠를 두르고 의로움의 갑옷을 입고 굳건히 서십시오. 발에는 평화의 복음을 위한 준비의 신을 신으십시오. 무엇보다도 믿음의 방패를 잡으십시오. 여러분은 악한 자가 쏘는 불화살을 그 방패로 막아서 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의 투구를 받아 쓰고 성령의 칼을 받아 쥐십시오. 성령의 칼은 하느님의 말씀입니다.

2018 년 12 월 2 일
대중을 위한 메시지

저는 (모린) 또다시 하느님 아버지의 성심이라고 알게 된 큰 불꽃을 봅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자녀들아, 오늘 나는 내 남은 신자들에게 말하기 위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내 창조물의 세계 안으로 들어왔다. 나는 내 남은 신자들에게 신앙의 전통의 진리 안에서 일치하도록 요청한다. 너희 중 어느 누구도 타협하도록 설득당하지 마라. 중요하지 않은 사안 때문에 서로 대립하지 마라. 사탄이 논란을 조성한다는 사실을 명심하여라.”

“나는 바로 이 남은 신자들이 신앙의 전통을 미래 세대에 전해주고 또 신앙의 전통을 (보존하면서) 앞으로 다가올 시련들을 헤쳐나갈 것을 믿는다. 이렇게 하려면 너희는 마음으로 서로 일치해야만 한다. 남은 신자들은 어디에나 있지만 또한 어디에도 없다. 그들은 하나의 지역에 자리잡고 있거나 하나의 교구 성당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내 남은 신자들은 내 아들이 재림할 때까지 세상 곳곳에 흩어져 있을 것이다. 나는 모든 이가 나와 하나가 될 때 너희와 함께 그의 승리를 함께 나눌 것이다.”

+ 성경 구절 독서 (2 테살 2:13-15):

주님께 사랑받는 형제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 때문에 늘 하느님께 감사를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느님께서 여러분을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시고 진리를 믿게 하여 구원하시려고, 여러분을 첫 열매로 선택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되라고 하느님께서서는 우리의 복음을 통하여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차지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형제 여러분, 굳건히 서서 우리의 말이나 편지로 배운 전통을 굳게 지키십시오.

+ 성경 구절 독서 (에페 4:11-16):

그분께서 어떤 이들은 사도로, 어떤 이들은 예언자로, 어떤 이들은 복음 선포자로, 어떤 이들은 목자나 교사로 세워 주셨습니다. 성도들이 직무를 수행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성장시키는 일을 하도록, 그들을 준비시키시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모두 하느님의 아드님에 대한 믿음과 지식에서 일치를 이루고 성숙한 사람이 되며 그리스도의 충만한 경지에 다다르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더 이상 어린아이가 아닐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은 사람들의 속임수나 간교한 계략에서 나온 가르침의 온갖 풍랑에 흔들리고 이리저리 밀려다닙니다. 우리는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고 모든 면에서 자라나 그분에게까지 이르러야 합니다. 그분은 머리이신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 덕분에, 영양을 공급하는 각각의 관절로 온몸이 잘 결합되고 연결됩니다. 또한 각 기관이 알맞게 기능을 하여 온몸이 자라나게 됩니다. 그리하여 사랑으로 성장하는 것입니다.

**2018년 12월 3일
대중을 위한 메시지**

저는 (모린) 또다시 하느님 아버지의 성심이라고 알게 된 큰 불꽃을 봅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자녀들아, 어제 나는 남은 신자들의 교회 안의 일치에 대해 너희에게 말했다. 오늘은 빠르게 다가오고 있는, 나에게서 나온 것이 아닌 일치에 대해 너희에게 경고를 주려 한다. 이것은 단일 세계 질서라는 거짓 일치다. 이 일을 위한 토대는 이미 마련되어 있다. 너희는 지금 현금이 불필요한 사회 즉, 경제적으로 살아남기 위해 복잡한 기술에 의존해야 하는 사회 쪽으로 기울어지고 있다. 단일 세계 질서는 하나의 지도자 즉, 적그리스도에게 길을 열어준다.”

“어떤 표징이나 이적을 일으키든, 단 한 명이 모든 권력을 쥐게 되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사회 질서를 조심하여라. 사탄은 인간의 마음을 안다. 그자의 지능은 인간의 지적 능력보다 뛰어나다. 따라서 사탄은 자신을 어떻게 나타내야 인류에게 가장 매력적으로 보여지는지를 잘 안다.”

“언제나 내 계명에 순종함으로써 내 곁에 가까이 머물러라. 나는 너희의 천상의 아버지다. 나는 너희가 이 시대를 이해하도록, 또 좋게 보이는 것 뒤에 어떤 위험들이 감춰져 있는지 너희가 깨닫도록 돕기 위해 진리를 밝혀줄 것이다.”

+ 성경 구절 독서 (2 테살 2:9-12):

그 무법자가 오는 것은 사탄의 작용으로, 그는 온갖 힘을 가지고 거짓 표징과 이적을 일으키며, 멸망할 자들을 상대로 온갖 불의한 속임수를 쓸 것입니다. 그들이 진리를 사랑하여 구원받는 것을 거부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사람을 속이는 힘을 보내시어 거짓을 믿게 하십니다.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자들이 모두 심판을 받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2018년 12월 4일

대중을 위한 메시지

저는 (모린) 또다시 하나님 아버지의 성심이라고 알게 된 큰 불꽃을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자녀들아, 악은 내가 세상에 베풀어준 모든 것들의 남용을 부추긴다는 점을 부디 깨달아라. 나는 부정한 목적을 위해 태내에서 파괴되고 분해되는 생명에 대해서만 말하는 것이 아니다. 나는 악을 조장하기 위해 세상의 물품들이 타협되는 모든 상황에 대해 말하고 있다.”

“사탄 숭배는 ‘종교’로서 스스로를 내세우면서 사람들의 눈에 좀 더 잘 띄기 위해 공공 부문의 일자리를 요구하고 있다. 수십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런 일은 결코 용납되지 않았을 것이며, 아예 가능한 일로 여겨지지도 않았을 것이다. 사람들의 양심은 진리에 관해서 이렇게나 많이 타협되고 말았다. 사탄은 의미론을 자신에게 유리한 쪽으로 사용하기를 멈추지 않고 있다.”

“자녀들아, 통상적인 일로 여겨지는 것을 즉결로 받아들이지 마라. 너희의 그리스도적 규범을 보호하여라. 사탄은 ‘시대에 뒤떨어진 구식’인 것처럼 보이게 함으로써 그 규범을 맹공격한다. 도덕은 이렇게 해서 변하고 타락하게 되는 것이다. 너희가 내게 속한다는 사실을 세상에 보여주어라. 너희에 대한 세상의 평판은 너희에 대한 나의 사랑과 나에 대한 너희의 사랑을 보여주는 것이어야만 한다.”

+ 성경 구절 독서 (2 티모 2:21-22, 24-26):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러한 것들에서 자신을 깨끗이 씻어 버리면, 귀하게 쓰이는 그릇, 곧 거룩하게 되어 주인에게 요긴하게 쓰이고 또 온갖 좋은 일에 쓰이도록 갖추어진 그릇이 될 것입니다. 청춘의 욕망을 피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주님을 받들어 부르는 이들과 함께 의로움과 믿음과 사랑과 평화를 추구하십시오... 주님의 좋은 싸워서 안 됩니다. 오히려 모든 사람에게 친절하고 잘 가르치며 참을성이 있어야 하고, 반대자들을 온유하게 바로잡아 주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회개시키시어 진리를 깨닫게 해 주실 수도 있습니다.

+ 성경 구절 독서 (2 티모 4:1-5):

나는 하느님 앞에서, 또 산 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님 앞에서, 그리고 그분의 나타나심과 다스리심을 결코 그대에게 엄숙히 지시합니다.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기회가 좋든지 나쁘든지 꾸준히 계속하십시오. 끈기를 다하여 사람들을 가르치면서, 타이르고 꾸짖고 격려하십시오. 사람들이 건전한 가르침을 더 이상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을 때가 올 것입니다. 호기심에 가득 찬 그들은 자기들의 욕망에 따라 교사들을 모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리에는 더 이상 귀를 기울이지 않고 신화 쪽으로 돌아설 것입니다. 그러나 그대는 어떠한 경우에도 정신을 차리고 고난을 견디어 내며, 복음 선포자의 일을 하고 그대의 직무를 완수하십시오.

2018년 12월 5일

대중을 위한 메시지

저는 (모린) 또다시 하느님 아버지의 성심이라고 알게 된 큰 불꽃을 봅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자녀들아, 오늘날의 세상을 바라보며 내가 느끼는 비통함을 너희가 깨닫기 바란다. 내가 너그럽게 베풀어준 것들 대부분은 의도된 목적을 위해서가 아니라 왜곡되어 사용되고 있다. 천연 가스와 전력을 지원하기 위해 주어진 원자력 에너지를 한 번 생각해 보아라. 이 원자력은 이제 모든 나라가 우열을 겨루고 있는 대량 살상 무기로 둔갑했다.”

“인간의 마음이 거룩한 사랑을 저버리게 되면 온갖 종류의 죄를 저지를 수 있게 된다.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에 관해 양심이 타협되며, 비뚤어진 이기적인 사랑이 마음속 우선 순위를 장악하게 된다. 이제 너희는 시시각각 핵 재앙이 일어나기 직전에 있는 세상에서 살고 있다. 모든 것이 인간의 자유의지에 달려 있듯 (핵 전쟁에 관한) 이 모든 것도 인간의 자유의지에 달려 있다. 그러나 이 결정은 생사가 걸린 선택이다.”

“지금이야말로 나에게 너희 마음을 내맡겨야 되는 때가 아니겠느냐? 바로 이것이 이 메시지들과 이 선교사업의 취지인 것이다. 지혜를 가지고 응답하여라.”

+ 성경 구절 독서 (히브 2:1-4):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들은 것을 더욱더 명심하여, 빛나가지 않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천사들을 통하여 선포된 말씀이 유효하고, 그것을 어기거나 따르지 않는 자들은 모두 정당한 벌을 받았는데, 하물며 우리가 이렇듯 고귀한 구원을 소홀히 하면 어떻게 벌을 피할 수 있겠습니까? 이 구원은 처음에 주님께서 선포하신 것으로, 그것을 들은 이들이 우리에게 확증해 주었습니다. 하느님께서도 당신의 뜻에 따라, 표징과 이적과 갖가지 기적을 통하여, 또 성령의 선물을 나누어 주시어 당신의 증언을 보태어 주셨습니다.

2018년 12월 6일

대중을 위한 메시지

저는 (모린) 또다시 하느님 아버지의 성심이라고 알게 된 큰 불꽃을 봅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자녀들아, 요즘에는 물건을 사고 선물을 주는 일에 많은 시간과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나는 너희가 현 순간을

낭비하지 않기를 요청한다. 너희의 사랑이라는 선물을 나에게 다오. 너희 각자에 대한 내 부름인 이 일에 너희가 전념한다면, 진정 복된 크리스마스 시기가 될 것이다.”

“믿지 않는 이들을 위해서 매일 기도하여라. 이들은 이 메시지들을 한 번도 접하지 못한 불행한 이들일 수도 있다. 그러나 이보다 더 심각한 것은 이곳의 천상의 노력을 접했음에도 믿지 않는 쪽을 선택한 잘못 인도된 영혼들이다. 이 영혼들은 모두 세상의 마음에 포함되어 있다. 바로 이 세상의 마음의 회심이 내 크리스마스 소원 목록 맨 위에 있다. 그러나 너희의 기도는 소원 그 이상이다. 나는 매 현 순간 모든 마음을 회심시키는 데 필요한 은총을 넘치도록 세상에 쏟아붓는다. 사랑하는 아버지로서 내 관심사는 언제나 내 자녀들의 안녕이다. 내가 처리하기에 너무 어려운 문제란 없다. 나의 전능을 믿어라. 믿음은 희망의 열매를 맺는다. 믿을 수 있게 해 주는 은총을 희망하여라.”

+ 성경 구절 독서 (시편 23:1-6):

주님은 나의 목자, 나는 아쉬울 것 없어라. 푸른 풀밭에 나를 쉬게 하시고 잔잔한 물가로 나를 이끄시어 내 영혼에 생기를 돋우어 주시고 바른길로 나를 끌어 주시니 당신의 이름 때문이어라. 제가 비록 어둠의 골짜기를 간다 하여도 재앙을 두려워하지 않으리니 당신께서 저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막대와 지팡이가 저에게 위안을 줍니다. 당신께서 저의 원수들 앞에서 저에게 상을 차려 주시고 제 머리에 향유를 발라 주시니 저의 술잔도 가득합니다. 저의 한평생 모든 날에 호의와 자애만이 저를 따르리니 저는 일생토록 주님의 집에 사오리다.

2018년 12월 7일

대중을 위한 메시지

저는 (모린) 또다시 하느님 아버지의 성심이라고 알게 된 큰 불꽃을 봅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자녀들아, 너희는 기술이 너희 마음속에 거짓된 안정감을 형성하도록 내버려 두면 안된다. 모든 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서 나와 거룩한 성모와 내 아들에게 의존하는 법을 배워라. 내 은총에 대한 이런 의존을 양육함으로써 나와 너희의 관계를 강화시켜라.”

“천상적 개입이 아니라 오직 자기 자신만을 신뢰하는 영혼들에 의해 너무나도 많은 은총이 상실되었다. 나는 이런 영혼들에게서 물러나 그들이 자신의 부족한 점을 볼 수 있게 한다.”

“현 시국에서 세계 여러 나라들은 너무 자주 특정 나라 간의 강력한 동맹이 변화와 평화와 안전을 가져오기를 기대한다. 그러나 사실은, 이런 동맹들은 천상적 개입에 의존하는 만큼만 성과를 낼 수 있을 뿐이다. 인류는 내 신성한 뜻을 벗어나서는 어떤 선도 이룰 수 없다. 모든 선의 근원은 언제나 내 신성한 뜻이다.”

“나라 간의 평화와 안전은 반드시 천상의 개입에 맡겨져야 한다.”

+ 성경 구절 독서 (골로 3:17, 23):

말이든 행동이든 무엇이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면서, 그분을 통하여 하느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십시오... 무슨 일을 하든지, 사람이 아니라 주님을 위하여 하듯이 진심으로 하십시오.

2018년 12월 8일

원죄 없이 잉태되신 복되신 동정 마리아 대축일

복되신 동정 마리아께서 말씀하십니다. “찬미 예수님.”

“사랑하는 자녀들아, 내 축일인 오늘 나는 너희가 크리스마스 날 오실 내 아드님을 위해 너희 마음을 준비하는 것을 돕기 위해 왔다. 두려움이나 불안, 용서못함이나 분노, 그리고 심지어 선물을 주고 받는 것 같은 크리스마스 시즌의 주의 산만한 점 등을 극복할 수 있도록 기도하여라. 이 모든 감정들을 하느님 아버지께서 내 아드님을 내 태중에 형성하셨을 때 당신의 마음을 가득 채웠던 그 사랑과 맞바꿔라. 바로 이 거룩하고 신성한 사랑으로 인해 세상이 영원히 바뀌고 천국의 문이 온 인류를 향해 열어지게 된 것이다.”

“이 위대한 선물에 대한 고마움의 표시로, 거룩한 사랑이 세상의 마음을 사로잡고 구원을 얻기 위해 하느님의 은총에 협력하도록 기도하여라. 나는 언제나 너희와 함께 기도하고 있다. 내 기도는 크나큰 크리스마스 축일이 가까이 다가옴에 따라 더욱 강렬해지고 있다. 나는 크리스마스날 뿐 아니라 천국에서도 너희 각자와 (이 날을) 기념하고 싶다.”

+ 성경 구절 독서 (루카 2:10-11):

그러자 천사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마라. 보라, 나는 온 백성에게 큰 기쁨이 될 소식을 너희에게 전한다. 오늘 너희를 위하여 다윗 고을에서 구원자가 태어나셨으니, 주 그리스도이시다.”

2018년 12월 8일

원죄 없이 잉태되신 복되신 동정 마리아 대축일

(이 메시지는 ‘은총의 한 시간’ 동안 기도할 때 주어졌습니다.)

복되신 동정 마리아께서 말씀하십니다. “찬미 예수님.”

“사랑하는 자녀들아, 오늘 나와 함께 기뻐하여라. 세상의 근심거리 때문에 너희 마음이 어수선해지지 않도록 하여라. 오히려 기꺼이 너희를 위해 일할 준비가 되어 있는 내 티 없는 성심에 너희의 모든 걱정을 의탁하여라.”

“너희는 어떤 어려움도 나 없이 너희 혼자서 직면하지 않는다. 또한 인간의 힘이나 자연의 힘, 또는 인간이 만들어낸 힘 등 그 어떤 것도 내 성심의 은총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없다. 그러니 걱정거리애 압도당하지 마라. 내 은총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말이나? 너희의 내맡김 안에 또한 너희의 평화도 있다. 뒤로 한발 물러나서 천상이 모든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지 지켜보아라.”

2018 년 12 월 9 일

대중을 위한 메시지

저는 (모린) 또다시 하느님 아버지의 성심이라고 알게 된 큰 불꽃을 봅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자녀들아, 지금 이 시대는 혼란으로 가득 차 있다. 그러니 지극히 거룩한 성모의 성심 안에서 피난처를 구하여라. 거룩한 사랑의 메시지들 안에서 피난처를 구함으로써 그렇게 하여라. 이 메시지들 안에는 너희가 영원한 생명 즉, 천국으로 갈 수 있는 확실한 길이 있다.”

“너희가 이렇게 하기 위해 진심으로 노력하면 나의 보호가 너희 위에 머무를 것이다. 누가 믿고 누가 믿지 않는지에 주의를 기울이지 마라. 거룩한 사랑의 사도가 되어라. 너희의 삶이 이 메시지의 성취를 증거할 수 있게 하여라. 현 순간이 너희가 은총을 전파하는 강단이 되게 하여라.”

“나는 이 세상에 이 메시지들을 읽는 독자들이 있다는 사실에 매우 감사하다. 나의 자녀들아, 사탄은 자신의 거짓말로 너희를 혼란스럽게 하기 위해 모든 기회를 이용한다. 이 메시지들과 이 선교사업은 진리를 가지고 모든 악에 대항한다. 내가 너희에게 제공하는 이 메시지들이라는 피난처 안에서 평화를 누려라. 이 메시지들 안에는 나의 사랑이 있다.”

+ 성경 구절 독서 (2 티모 1:13-14):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주어지는 믿음과 사랑으로, 나에게서 들은 건전한 말씀을 본보기로 삼으십시오. 우리 안에 머무르시는 성령의 도움으로, 그대가 맡은 그 훌륭한 것을 지키십시오.

2018 년 12 월 12 일

과달루페의 동정 마리아 축일 - 오후 3 시 기도모임

(이 메시지는 여러 날에 걸쳐 여러 부분으로 나누어 주셨습니다.)

우리의 모후께서 과달루페의 성모님의 모습으로 오시어 말씀하십니다. “찬미 예수님.”

“사랑하는 자녀들아, 주님께서는 다시 한 번 내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너희와 대화하는 것을 허락하셨다. 너희 대부분은 세상이 극도로 허약한 상황에 놓여 있음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 세상의 미래의 안녕은 소수의 선택된 지도자들과 그들이 마음속에 무엇을 진리라 여기고 있는지에 달려 있다. 태어나지 않은 아기들에 대한 인간의 대우 때문에 세상에는 큰 불안이 존재한다. 태내의 생명이 평화를 누릴 때까지 세상에는 참되고 지속적인 평화가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너희가 낙태를 법적 권리로 받아들이는 한 나라들은 서로 전쟁을 벌일 것이다. 어떤 사상(이데올로기)들은 폭력을 수용할 것이며 진리를 조롱거리로 삼을 것이다.”

“오늘 내가 너희에게 말함은 세상의 마음이 진로를 변경할 수 있는 또다른 기회다. 만약 천상의 개입이 무시된다면, 이때까지 사랑어린 마음으로 인내하신 내 아드님께서는 당신의 진노가 시작되는 것을 허락하실 것이다. 나는 그때가 되면 되돌릴 수 없게 될 것이기에 두렵다.”

“열린 마음으로 이 메시지들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너희의 교만을 시인하여라. 너희의 불신이나 미지근한 응답은 이곳의 천상의 개입의 현실을 바꾸지 못한다.”

“하느님의 성심은 오늘날 세상에 존재하는 당신의 계명에 대한 무시와 무관심 때문에 대단히 슬퍼하고 계신다. 그분의 계명이 명령하는 대로 하느님을 만유 위에 사랑한다 진정으로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은 극소수에 불과하다. 나는 너희의 목주기도와 다른 기도들, 그리고 희생의 사례들을 가지고 하느님의 정의의 팔을 매우 힘겹게 붙들고 있다.”

“너희는 이따금씩 강력한 허리케인이나 산불 또는 지진 등의 전례 없는 자연 재해들을 통해서 하느님의 진노의 작은 부분을 엿볼 수 있다. 그러나 이것들은 인간의 마음에 그저 일시적인 인상만 남길 뿐 그들이 회심하기에는 충분하지 않다.”

“모든 나라의 법은 반드시 하느님의 계명을 반영해야 한다. 각 나라는 이에 따라 하느님의 눈에 정의된다.”

“나는 너희를 꾸짖는 마음으로 온 것이 아니라 자녀들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너무 늦기 전에 그들을 바로잡아주려 하는 어머니의 마음으로 너희에게 온 것이다.”

“사랑하는 자녀들아, 요즘에는 선물을 주고 받는 일과 세상의 물품들에 너무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할애되고 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지만, 너희가 가진 또는 너희가 받게 될 가장 큰 선물은 바로 너희의 믿음이다. 너희의 믿음을 소중히 여겨라. 너희가 믿음 안에서 인내할 수 있도록 기도하여라. 요즘 시대는 믿음이 크게 부정될 것이라 예언된 시대이기 때문이다. 나는 언제나 너희 신앙의 수호자이며, (이 칭호가) 승인을 받지 못한다 해도 이 칭호를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내게 청하여라. 그러면 내가 어려움 가운데서 너희의 믿음을 강화시켜 줄 것이다.”

“언제나 그렇듯 나는 주 예수님께 찬미와 영광을 드린다. 나는 나와 함께 있기 위해 오늘 이곳에 오기 위해 노력해준 너희 모두에게 감사한 마음을 전한다. 나는 너희 각자의 마음속에 있다. 너희 각자는 나의 자녀이며 나는 너희의 천상의 어머니다. 내 아드님의 성심이 비탄에 잠기도록 슬프게 만드는 세상의 마음의 회심을 위해 항상 기도하여라.”

“사랑하는 자녀들아, 오늘 나는 모든 청원을 내 성심 안으로 가져가면서 너희에게 내 거룩한 사랑의 축복을 내린다.”

2018년 12월 13일

대중을 위한 메시지

저는 (모린) 또다시 하느님 아버지의 성심이라고 알게 된 큰 불꽃을 봅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대림절은 성탄일 아침 구세주의 오심을 위한 준비 기간이다. 많은 희생과 자비로운 기도들로 너희 마음을 준비하여라. 너희가 더 많이 희생하고 기도하며 준비할수록 더욱더 진정으로 복된 성탄절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너희가 마음속에 품고 있는 청원 중에서 내가 모르는 청원이란 없다. 그러니, 너희의 필요에 주의를 빼앗기지 마라. 모든 것을 나에게 내맡겨라. 지나가는 모든 순간 순간이 최종 작품인 성탄절을 만드는 기본 재료다. 지금 이 시기는 용서의 시기다. 왜냐하면 만약 너희가 마음속에 앙심을 품고 있다면 성탄일 아침 너희 마음속에 내 아들이 들어오는 것을 방해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번 성탄절이 이타적인(사심 없는) 성탄절이 되게 하여라. 모든 일을 너희에게 어떻게 영향을 줄 것인지를 관점에서 보지 마라. 모든 현 순간과 마찬가지로, 다른 이들을 위해 살면서 연말을 보내라. 그러면 너희는 너희에게 주어지는 은총에 있어서 절대 실망하지 않을 것이다.”

**2018 년 12 월 14 일
대중을 위한 메시지**

저는 (모린) 또다시 하느님 아버지의 성심이라고 알게 된 큰 불꽃을 봅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모든 영혼이 선이나 악이나 즉, 구원이나 멸망이나를 선택해야만 하는 결정적인 순간이 다가오고 있다. 어떤 이들은 앙심의 방향을 바꿀 시간을 얻지 못한 채 자신의 죄 속에서 죽게 될 것이다.”

“나는 의로운 이들은 올바른 길로 계속 나아가도록, 그리고 악한 선택을 한 이들은 잘못을 깨닫도록 지금 이런 사실을 너희에게 말해준다. 대부분의 경우 가장 회심이 필요한 이들이 (자신이 회심이 필요하다는)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한다. 그들은 전혀 나의 계명에 따라 살기 위해 노력하지 않는다. 어떤 이들은 내 계명에 순종하면서 산다고 믿지만 그들의 타협된 마음 속에서 그들은 자신의 생활 방식에 맞추기 위해 내가 명령한 것들을 재정의하였다. 그들의 심판 때에는 어떠한 논쟁도 없을 것이다.”

“너희는 너희의 마지막 심판의 시간이나 순간을 모르므로, 지혜롭게 살고 (항상) 대비하고 있어야. 어떤 이들은 내가 말하고 있는 이 엄청난 심판의 때가 도래하기 전에 내게 오게 될 것이다. 그때 나는 그들의 마음속을 들여다 볼 것이다. 만약 그들이 회개하기를 너무 오랫동안 미뤘다면 더이상의 기회는 없을 것이다.”

+ 성경 구절 독서 (루카 12:40; 21:34-36):

“너희도 준비하고 있어야. 너희가 생각하지도 않은 때에 사람의 아들이 올 것이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여, 방탕과 만취와 일상의 근심으로 너희 마음이 물러지는 일이 없게 하여라. 그리고 그날이 너희를 덮처럼 갑자기 덮치지 않게 하여라. 그날은 온 땅 위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들이닥칠 것이다. 너희는 앞으로 일어날 이 모든 일에서 벗어나 사람의 아들 앞에 설 수 있는 힘을 지니도록 늘 깨어 기도하여라.”

**2018 년 12 월 15 일
대중을 위한 메시지**

저는 (모린) 또다시 하느님 아버지의 성심이라고 알게 된 큰 불꽃을 봅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지금 이 시기의 핵심은 준비다. 나는 너희가 많은 선물과 장식 등으로 성탄 준비가 되어 있는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나는 환난과 내 아들의 재림을 준비하는 시기에 대해 말하고 있다. 이렇게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예쁜 종이와 리본으로 포장해서 너희에게 상키시켜 주는 것은 아니지만 이것은 너희가 받았거나 또는 앞으로 받게 될 그 어떤 선물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너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매우 위험한 시대를 자각하지 못하고 있다. 죄에 대한 유혹은 너희 주변 도처에 존재하며, 도덕은 야심적인 이익에 유리하도록 한쪽으로 치워져 버렸다.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물질적인 세계가 바로 알파요 오메가다. 바로 이런 이들이 장차 견고한 믿음만이 중요하게 될 때 바람에 흩날리는 나뭇잎처럼 이리저리 치이게 될 불행한 영혼들이다.”

“이 준비의 시기 동안, 영원한 말씀이 구유에서 강생하신 것처럼 많은 성경 말씀이 실현되는 이때, 준비하고 있어라.”

+ 성경 구절 독서 (묵시 6:3-4):

어린양이 둘째 봉인을 뜯으셨을 때, 나는 둘째 생물이 “오너라.” 하고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러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는데, 그 위에 탄 이는 사람들이 서로 살해하는 일이 벌어지도록 땅에서 평화를 거두어 가는 권한을 받았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큰 칼을 받았습니다.

**2018 년 12 월 16 일
대중을 위한 메시지**

저는 (모린) 또다시 하느님 아버지의 성심이라고 알게 된 큰 불꽃을 봅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아, 앞으로 다가올 내 왕국에 너희의 초점을 유지하면서 매 현 순간 너희 마음을 쇠신하여라. 문제들이 너희를 압도하도록 허락하지 마라. 모든 해결책은 내 성심 안에 있다. 이 사실에 확신을 가져라. 미래는 내게 수수께끼가 아니다. 나는 너희를 기다리는 모든 문제와 해결책 들을 다 보고 있다.”

“원수는 혼란과 논란 안에 존재한다. 이 두 가지는 모두 너희의 굳건한 믿음을 조금씩 갉아먹는다. 어려움은 나타났다 없어진다. 세상의 모든 상황은 일시적인 것이기에 문제들을 영구적인 것이라 생각하지 말고 일시적인 것으로 여겨라. 나에 대한 너희의 신뢰 안에서 평화를 누려라.”

+ 성경 구절 독서 (시편 5:11-12):

하느님, 그들이 짓값을 받게 하소서. 자기들의 음모에 빠지게 하소서. 그들의 죄악이 많으니 그들을 내치소서. 정녕 그들이 당신을 거역하였습니다. 그러나 당신께 피신하는 이들은 모두 즐거워하며 영원토록 환호하리이다. 당신 이름 사랑하는 이들을 당신께서 감싸 주시니 그들은 당신 안에서 기뻐하리이다.

**2018 년 12 월 17 일
대중을 위한 메시지**

저는 (모린) 또다시 하느님 아버지의 성심이라고 알게 된 큰 불꽃을 봅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주는 모든 현 순간들에 대해 감사하여라. 매 현 순간은 너희의 마지막 심판과 내 아들의

재림, 그리고 세상의 최종적인 평화에 그만큼 더 가까이 다가가는 것이다. 매 순간은, 만약 너희가 거룩함을 갈망한다면, 너희의 개인의 거룩함에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가는 것이다. 현 순간은 수많은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는 길을 열어준다. 또한 너희와 내가 함께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어려움도 제시한다. 너희가 허락하기만 한다면, 매 현 순간은 우리 사이의 더 깊은 관계를 쌓기 위한 자재로 활용될 수 있다.”

“너희가 나와 더 깊은 관계를 맺을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는 신뢰를 실천하는 것이다. 사랑하는 영혼에게는 신뢰란 마치 걸음으로 말하지는 않지만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기도와 같다. 나는 나를 신뢰하는 이의 청원을 경청한다. 너희가 나를 신뢰한다면, 너희의 기도에 대한 나의 대답이 너희가 기대하지 않았던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기꺼이 받아들일 것이다. 신뢰는 너희의 유익을 위해 나의 뜻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너희가 지켜보게 한다.”

“현 순간의 은총은 간과되는 경우가 많지만 나를 신뢰하는 이는 지나가는 모든 순간들이라는 나의 선물을 고마워할 줄 안다.”

+ 성경 구절 독서 (루카 11:10-13):

“누구든지 청하는 이는 받고, 찾는 이는 얻고, 문을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다. 너희 가운데 어느 아버지가 아들이 생선을 청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겠느냐? 달걀을 청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해도 자녀들에게는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야 당신께 청하는 이들에게 성령을 얼마나 더 잘 주시겠느냐?”

**2018년 12월 18일
대중을 위한 메시지**

저는 (모린) 또다시 하느님 아버지의 성심이라고 알게 된 큰 불꽃을 봅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자녀들아, 나는 너희가 다가오는 성탄 대축일을 준비하는 것을 돕기 위해 지금 너희에게 말하고 있다. 지금 이 시기(성탄절)에 세속적인 일에서 너희가 완전히 마음을 떼기란 상당히 어렵다. 선물을 주고 받는 일, 특별한 음식 등 (이런 생각들이) 너희 마음을 차지한다. 이 중 어떤 것들은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그날(성탄)이 다가오는 지금 너희에게 준 나의 선물 곧,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아무것도 너희 마음을 차지해서는 안된다.”

“그는 팡파르와 함께 너희에게 온 것이 아니라 초라한 구유 안에서 포대기에 싸인 단순함 속에 너희에게 왔다. 그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모든 세대 곧, 모든 백성과 모든 민족을 위해 왔다. 나의 부성적 성심은 세월이 지나는 동안 그를 버리고 떠난 영혼들이 돌아오기를 갈망한다. 어떤 이들은 방랑하다 새로운 이교(異敎)에 빠져 더이상 예수를 그들의 구세주로 인정하지 않는다. 그런가 하면 아예 성탄절의 종교적 측면은 배제하고 오로지 물질적인 측면에서만 이 날을 기념하는 이들도 있다. 또 다른 이들은 일년 내내 종교를 외면하면서 오직 성탄일 단 하루만 성당에 나가는 이들도 있다.”

“나의 부성적 성심은 이 모든 영혼들이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란다. 나는 나의 외아들을 지상에 보내줌으로써 너희를 위해 내가 한 모든 일에 대해 감사하면서 성탄일을 기념해 줄 것을 모든 백성과 모든 민족에게 간곡히 청한다. 단순히 지금이 성탄 시기라서 성탄절을 기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너희의 구세주로 모시게 된 영예에 관해서 성탄절을 기념하여라.”

+ 성경 구절 독서 (1 티모 4:1-2, 7-8):

성령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때에 어떤 이들은 사람을 속이는 영들과 마귀들의 가르침에 정신이 팔려 믿음을 저버릴 것입니다. 양심이 마비된 거짓말쟁이들의 위선 때문입니다... 저속하고 망령된 신화들을 물리치십시오. 신심이 깊어지도록 자신을 단련하십시오. 몸의 단련도 조금은 유익하지만 신심은 모든 면에서 유익합니다. 현재와 미래의 생명을 약속해 주기 때문입니다.

2018년 12월 19일

대중을 위한 메시지

저는 (모린) 또다시 하느님 아버지의 성심이라고 알게 된 큰 불꽃을 봅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를 믿지 않는 쪽을 선택하는 이들도 여전히 나의 권위에 복종해야 한다. 믿지 않겠다는 그들의 자유의지 선택은 그들을 내 은총으로부터 떼어 놓는다. 그럼에도 나는 그들의 삶 속에서 여러가지 상황을 바꿔가며 계속해서 그들을 굴복시키기 위해 노력한다. 많은 비신자들이 신앙의 환경 속에서 자랐지만 교만한 자기 자신의 뜻으로 인해 모든 일은 인간의 노력 또는 인간이 만들어낸 상황의 결과로 일어난다고 믿는다. 이것이야말로 궁극적인 진리의 타협이다.”

“믿지 않는 이들은 인간 역사의 행로와 그들 자신의 운명의 행로를 바꾼다. 그들은 그들의 선택으로 세상에 대한 내 영향력을 약화시키는가 하면 사탄에게는 힘을 더해 준다. 또한 그들은 내 뜻에 협력하는 대신 사탄의 제안에 마음을 연다. 사악한 선택들이 대중 매체와 복장 규정, 정치와 심지어 의학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지금 이 시기는 믿음이 애정이 듬뿍 담긴 많은 은총으로 보상 받는 때이며 심지어 마음의 평화까지도 얻을 수 있는 시간이다. 믿음이 사탄의 영감보다 한 발 더 앞서도록 기도하여라. 믿지 않는 이들이 그들의 마음속에서 성탄의 빛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기도하여라.”

+ 성경 구절 독서 (히브 3:1-4):

그러므로 하늘의 부르심을 함께 받은 거룩한 형제 여러분, 우리 신앙 고백의 사도이며 대사제이신 예수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가 “하느님의 온 집안을 충실히 맡고 있었듯이”, 예수님께서도 당신을 세우신 분께 충실히 하셨습니다. 그러나 집을 지은 이가 집보다 더 존귀하듯이, 예수님도 모세보다 더 큰 영광을 누리셔야 마땅합니다. 어떤 집이든 그것을 지은 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물을 지으신 분은 하느님이십니다.

2018년 12월 20일

대중을 위한 메시지

저는 (모린) 또다시 하느님 아버지의 성심이라고 알게 된 큰 불꽃을 봅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주 너희 하느님이다. 나는 내 뜻을 너희에게 강요하기 위해 오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부디 깨달아라. 나는 너희가 자유의지로 좀 더 나은 선택을 하도록 돕기 위해 이 메신저(모린)를 통해 너희에게 말하고 있다. 이 메신저를 면밀히 조사하는 데 시간을 낭비하는 대신 너희 자신의 양심을 세심히 살피라. 너희는 너희 마음의 중심에 나를 두고 살고 있느냐? 너희는 나를 기쁘게 해 주기 위해 살고 있느냐? 나의 판단을 존중하여라. 세상

사람들에게 깊은 인상을 주기 위해 노력하는 것을 그만두고 거룩함을 향한 너희의 노력으로 나를 감동시키기 위해 노력하여라.”

“나는 세상의 마음에서 물질주의와 독선적 지성을 없앨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란다. 그때에 너희는 비로소 항구적 평화를 얻게 될 것이다. 평화는 거룩한 사랑과 거룩한 겸손의 기초에 근거해야만 한다. 그렇지 않으면 그것은 참된 평화가 아니다. 요즘 시대의 권력자들은 도덕적인 평화를 우회하기 위해 애쓰면서 시간을 낭비하고 있다. 흔히 세계 지도자들은 진리를 존중하지 않는다. 거룩한 사랑과 거룩한 겸손은 항상 진리에 근거하기에, (진리를 존중하지 않는) 이런 태도는 참된 평화를 향한 모든 노력을 위태롭게 만든다.”

“거룩한 사랑과 거룩한 겸손은 선과 악의 차이를 손쉽게 구별한다. 이 두 가지 덕은 영혼이 도덕적인 선택 즉, 나를 기쁘게 하는 선택을 하도록 영혼을 돕는다. 만약 영혼들이 내가 오늘 너희에게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인다면 공격적인 행위나 테러 등은 사라질 것이다. 또한 거짓 신들은 한쪽으로 치워질 것이다. 더 많은 사랑과 겸손을 얻기 위해 기도함으로써 지금 나를 기쁘게 하기 시작하여라. 이것은 훌륭한 기도이며, 나를 기쁘게 하는 기도다.”

+ 성경 구절 독서 (1 티모 2:1-4):

그러므로 나는 무엇보다도 먼저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청과 기도와 전구와 감사를 드리라고 권고합니다.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하여, 우리가 아주 신심 깊고 품위 있게, 평온하고 조용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의 구원자이신 하느님께서 좋아하시고 마음에 들어 하시는 일입니다. 하느님께서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깨닫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2018년 12월 21일

대중을 위한 메시지

저는 (모린) 또다시 하느님 아버지의 성심이라고 알게 된 큰 불꽃을 봅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자녀들아, 오늘 나는 내 아들의 신비로운 구유의 마지막 짚을 준비하고 있다. 나는 해마다 거듭거듭 그의 탄생의 희생을 실천하기에, 이번 성탄일에도 또다시 나의 아들을 너희에게 내어줄 것이다. 너희의 사랑어린 기도로 그를 따뜻하고 편안하게 해 주어라.”

“너희 마음이 그의 탄생의 초라한 현장에서 벗어나지 않게 하여라. 너희 마음속에 거룩한 사랑을 지님으로써 그의 거룩한 어머니 곁에 머물러라. 올해에는 예수 강생 시기를 기념하면서 거룩한 성모와 요셉 성인을 축하해 주어라.”

“그의 탄생은 믿는 이들에게는 기쁨에 찬 희망을 경축하는 날이다. 오직 세속적인 성탄일을 준비하는 이들을 위해 기도하여라. 그들의 성탄일은 공허한 기념일이다.”

“너희가 받는 모든 (크리스마스) 카드와 너희가 보는 모든 장식을 통해 나와 함께 성탄절의 기쁨을 경험하여라. 너희의 마음이 베들레헴으로 떠나 초라한 구유 곁에 나와 함께 머무르게 하여라.”

+ 성경 구절 독서 (루카 2:15-16):

천사들이 하늘로 떠나가자 목자들은 서로 말하였다.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려 주신 그 일, 그곳에서 일어난 일을 봅시다.” 그리고 서둘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운 아기를 찾아냈다.

2018 년 12 월 22 일

대중을 위한 메시지

저는 (모린) 또다시 하느님 아버지의 성심이라고 알게 된 큰 불꽃을 봅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자녀들아, 나는 너희 모두 마음의 고요함 속에서, 구유 안의 내 외아들의 실재적 현존을 묵상하면서 이번 성탄절을 지내기 바란다. 그의 탄생은 세속적 선물들에 관한 것이 아니라 오로지 마음의 고요함 속에서만 알아볼 수 있는 마음속 선물들에 관한 것이다.”

“세상의 마음은 천천히, 그러나 또한 급격히 무질서한 자기만을 위한 사랑에 잠식되고 있다. 나는 내 남은 신자들이 모든 영혼의 원수인 사탄이 부채질하는 이 보이지 않는 힘을 인식하기 바란다. 갈수록 더 많은 영혼들이 물질주의의 모습을 띠는 이 보이지 않는 적과 싸우도록 기도하여라. 이자는 소비주의를 성탄절을 기념하는 유일한 의식(儀式)으로 홍보한다.”

“남은 신자들아, 너희는 세상의 마음을 공격하고 있는 물질주의라는 폭풍우에서 ‘방주’다. 서로 일치단결하여 기도하여라.”

+ 성경 구절 독서 (에페 2:19-22):

그러므로 여러분은 이제 더 이상 외국인도 아니고 이방인도 아닙니다. 성도들과 함께 한 시민이며 하느님의 한 가족입니다. 여러분은 사도들과 예언자들의 기초 위에 세워진 건물이고,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바로 모퉁잇돌이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전체가 잘 결합된 이 건물이 주님 안에서 거룩한 성전으로 자라납니다. 여러분도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을 통하여 하느님의 거처로 함께 지어지고 있습니다.

2018 년 12 월 23 일

대중을 위한 메시지

저는 (모린) 또다시 하느님 아버지의 성심이라고 알게 된 큰 불꽃을 봅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자녀들아, 마리아와 요셉이 마굿간에 들어갔을 때 예수가 탄생하면 그를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는 비어 있는 구유를 보았다. 너희도 이와 같이 너희 마음에서 모든 세상 걱정을 비워 갖 태어난 예수를 위한 자리를 마련하면서 성탄일에 예수가 너희에게 오는 것을 준비하여라.”

“세상은 임박한 재앙으로 가득하다. 시간이 내 진노를 향해 전진하면서 자연 재해는 점점 더 악화되고 있다. 지금은 미래에 일어날 일들에 대한 걱정을 내려놓고 잠시 쉬어야 할 때다. 서로를 용서하여라. 또한 너희 마음에서 모든 죄책감이 사라지도록 너희 자신도 용서하여라. 너희 마음이 아기 예수를 따뜻하게 맞이하는 집이

되게 하여라. 성탄일 아침 너희의 사랑으로 그를 따뜻하게 해 주어라. 내 계명에 순종함으로써 세상을 바꿔라. 너희의 사랑어린 순종이라는 양식으로 아기 예수를 먹여라.”

+ 성경 구절 독서 (루카 2:7):

마리아는 해산 날이 되어 첫아들을 낳았다. 그들은 아기를 포대기에 싸서 구유에 뉘었다. 여관에는 그들이 들어갈 자리가 없었던 것이다.

2018 년 12 월 24 일

대중을 위한 메시지

저는 (모린) 또다시 하느님 아버지의 성심이라고 알게 된 큰 불꽃을 봅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자녀들아, 나는 너희에게 말하기 위해 다시 한 번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너희에게 왔다. 오늘 이날(성탄일)과 이날의 의미를 기리면서 세상의 마음은 고요해져야 한다. 나는 이 모든 것이 마치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인 것처럼 너희에게 말해줄 수 있다. 거룩한 성모는 그녀의 “예”라는 대답이 그녀와 성 요셉을 따라 초라한 마굿간에 이르기까지 계속 이어지게 함으로써 매 현 순간을 성화시켰다. 그들은 좀 더 나은 거처에서 몇 번이나 거절을 당했기에 상심이 컸다. 이 사실은 오늘날 내 성심의 비통함을 보여주는데, 너무나 많은 이들이 예수를 그들의 마음속으로 들이지 않기 때문이다. 마굿간은 축축하고 황량했으며 악취가 진동했다. 그러나 내 외아들이 탄생하자 마굿간은 따스한 빛으로 가득 찼다. 주위 환경의 모든 불쾌한 점들은 사라졌으며, 기쁨이 공기를 가득 채웠다. 나는 모든 이가 허락만 한다면 오늘 그들의 마음속에 바로 이 기쁨을 넣어주고 싶다.”

“내가 너희 각자와 낙원을 함께 나눌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듯 이 성탄일 또한 너희 각자와 함께 기념할 수 있기를 바란다. 우리 사이를 가로막는 유일한 것은 바로 너희의 자유의지다. 내가 너희 삶 속의 암울하고 황량한 것들을 기쁨으로 바꿔줄 수 있게 허락하여라. 너희 마음속에 있는 예수의 현존의 따스한 빛이 너희를 에워싸게 하여라. 예수가 세상에 들어옴을, 그리고 너희 마음속에 들어옴을 경외하여라. 바로 이것이 내가 너희가 경험하기를 바라는 성탄일이며 내가 너희와 함께 나누기를 고대하는 성탄일이다.”

+ 성경 구절 독서 (루카 2:9-12):

그런데 주님의 천사가 다가오고 주님의 영광이 그 목자들의 둘레를 비추었다. 그들은 몹시 두려워하였다. 그러자 천사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마라. 보라, 나는 온 백성에게 큰 기쁨이 될 소식을 너희에게 전한다. 오늘 너희를 위하여 다윗 고을에서 구원자가 태어나셨으니, 주 그리스도이시다. 너희는 포대기에 싸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게 될 터인데, 그것이 너희를 위한 표징이다.”

2018 년 12 월 25 일

주님 성탄 대축일

저는 (모린) 또다시 하느님 아버지의 성심이라고 알게 된 큰 불꽃을 봅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자녀들아, 오늘, 강성한 말씀(예수 그리스도)을 기리면서 이 메시지들을 통해 내가 너희와 접촉하고 있다는

사실 또한 경축하여라. 인류를 구속하기 위해 말씀이 사람이 되어 세상에 들어왔다. 나는 너희를 바로 이 구원으로 부르기 위해 너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다. 나의 계명에 순종하여라.”

+ 성경 구절 독서 (루카 1:16-17):

“...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들 가운데에서 많은 사람을 그들의 하느님이신 주님께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는 또 엘리야의 영과 힘을 지니고 그분보다 먼저 와서, 부모의 마음을 자녀에게 돌리고, 순종하지 않는 자들은 의인들의 생각을 받아들이게 하여, 백성이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갖추게 할 것이다.”

**2018년 12월 26일
대중을 위한 메시지**

저는 (모린) 또다시 하느님 아버지의 성심이라고 알게 된 큰 불꽃을 봅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자녀들아, 이 선교사업의 수명은 진리에 달려 있다. 이 선교사업에 맞서는 모든 반대는 진리의 타협이다. 바로 이 (진리의 타협) 진리에 대한 믿음을 약화시키고 내 아들의 비통한 성심에 비수를 꽂는 것이다.”

“이 선교사업과 여기에 수반된 거룩한 사랑의 메시지들은 믿지 않는 이들의 마음을 변화시켜야 하는 의무를 지닌다. 믿지 않는 이들은 진리와 조화를 이루는 대신 믿지 않을 이유를 지어낸다. 그럼에도 우리는 믿지 않는 세상에서 믿음의 표징으로서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간다.”

“내 남은 신자들이 목적 아래 일치단결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중요하다. 거룩한 사랑의 진리 안에서 서로 하나 되어 인내하여라. 너희가 가장 약하다고 느낄 때 신앙의 수호자가 너희를 보호하게 하여라.”

+ 성경 구절 독서 (필리 2:1-2):

그러므로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격려를 받고 사랑에 찬 위로를 받으며 성령 안에서 친교를 나누고 애정과 동정을 나눈다면, 뜻을 같이하고 같은 사랑을 지니고 같은 마음 같은 생각을 이루어, 나의 기쁨을 완전하게 해주십시오.

+ 성경 구절 독서 (2 티모 4:1-5):

나는 하느님 앞에서, 또 산 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님 앞에서, 그리고 그분의 나타나심과 다스리심을 결코 그대에게 엄숙히 지시합니다.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기회가 좋든지 나쁘든지 꾸준히 계속하십시오. 끈기를 다하여 사람들을 가르치면서, 타이르고 꾸짖고 격려하십시오. 사람들이 건전한 가르침을 더 이상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을 때가 올 것입니다. 호기심에 가득 찬 그들은 자기들의 욕망에 따라 교사들을 모아들일 것입니다. 그리고 진리에는 더 이상 귀를 기울이지 않고 신화 쪽으로 돌아설 것입니다. 그러나 그대는 어떠한 경우에도 정신을 차리고 고난을 견디어 내며, 복음 선포자의 일을 하고 그대의 직무를 완수하십시오.

2018 년 12 월 27 일

대중을 위한 메시지

저는 (모린) 또다시 하느님 아버지의 성심이라고 알게 된 큰 불꽃을 봅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자녀들아, 너희의 마음을 거룩한 사랑에 완전히 내맡겨라. 이것이 내 신성한 뜻에 완전히 내맡기는 방법이기 때문이다. 거룩한 사랑에는 내 모든 계명이 함축되어 있다. 그러므로, 거룩한 사랑에 충실한 영혼은 내 계명을 어기지 않는다. 이런 영혼은 내가 (그의) 모든 시련 속에서 더 큰 선을 본다는 사실과, 내가 그의 크고 작은 모든 승리를 함께 나눈다는 사실을 안다.”

“영혼이 그의 자유의지를 거룩한 사랑에 내맡길 때 삶의 모든 어려움은 새로운 관점을 지니게 된다. 최근 너희는 영원한 말씀의 강생을 기념했다. 오늘은 거룩한 사랑을 통해서 너희가 내 뜻에 완전히 내맡김을 나와 함께 기념하자.”

+ 성경 구절 독서 (에페 5:15-17):

그러므로 미련한 사람이 아니라 지혜로운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잘 살펴보십시오. 시간을 잘 쓰십시오. 지금은 악한 때입니다. 그러니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달으십시오.

2018 년 12 월 28 일

대중을 위한 메시지

저는 (모린) 또다시 하느님 아버지의 성심이라고 알게 된 큰 불꽃을 봅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자녀들아, 나는 모든 진리이며 또한 모든 진리 안에 존재한다. 오늘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 것으로 너희 마음을 가득 채워라. 희생과 기도는 오직 그것이 진리를 지지하는 만큼만 가치가 있을 뿐이다. 진리는 거룩한 사랑을 그 경계로 삼는다.”

“그러므로, 거룩한 사랑이 너희 삶의 척도가 되게 하여라. 원수는 끊임없이 거룩한 사랑을 손상시키기 위해 너희 마음속으로 침투할 방법을 찾는다. 분열이 그런 것처럼 낙심과 혼란 또한 원수의 또다른 두 가지 특징이다. 거룩한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는 이들은 세상에서 악의 도구가 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실제로는 도덕적 문제인데도 정치적 문제로 여겨지는 것들이 존재하는 것이다.”

“너희 마음을 거룩한 사랑에 의탁하여라. 그러면 내가 너희의 모든 문제와 모든 결정의 일부가 될 것이다. 나는 너희가 공격 받을 때마다 너희를 지지해 주고 너희의 문제를 내 성심 안에 품으며 너희를 절대 저버리지 않을 것이다. 너희는 은총의 내적 활동을 보게 될 것이며 믿기 위한 새로운 방법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너희가 거룩한 사랑을 통해 나를 신뢰하기만 한다면 나는 너희 마음을 천국의 드높은 곳까지 들어올릴 것이다.”

+ 성경 구절 독서 (1 코린 13:4-7,13):

사랑은 참고 기다립니다. 사랑은 친절합니다. 사랑은 시기하지 않고 뽐내지 않으며 교만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무례하지 않고 자기 이익을 추구하지 않으며 성을 내지 않고 앙심을 품지 않습니다. 사랑은 불의에 기뻐하지

않고 진실을 두고 함께 기뻐합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덮어 주고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디어 냅니다... 그러므로 이제 믿음과 희망과 사랑 이 세 가지는 계속됩니다. 그 가운데에서 으뜸은 사랑입니다.

+ 성경 구절 독서 (시편 4:5):

의로운 희생 제물을 봉헌하며 주님을 신뢰하여라.

2018년 12월 29일

대중을 위한 메시지

저는 (모린) 또다시 하느님 아버지의 성심이라고 알게 된 큰 불꽃을 봅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가 이 선교회의 역사 속의 특정 사건들을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왔다. 이 선교회를 세우기 위해 너희가 보여주었던 인내심은 그 자체만으로도 주목할 만하다. 내 아들 또한 이 선교사업과 마찬가지로 당시의 권력자들에게 제대로 이해 받지 못했었다는 점을 부디 기억하여라. 이 두 가지 경우 모두 거의 같은 이유 때문에 그랬던 것이다. 곧, 권력을 잃게 될까 하는 두려움, 중요한 사람들에 대한 영향력을 잃게 될까 하는 두려움 때문이었다.”

“너희는 같이 모여 기도하기 위한 장소를 찾기 위해 참으로 많이 옮겨다녀야만 했다. 힘 있는 자들이 선동한 잘못된 정보가 너희를 따라다녔기 때문에, 또 심지어 너희보다 앞서 나간 경우도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이곳(마라나타 샘과 성지)에 있다. 이곳 성지에 수반된 은총은 실로 놀라우며 또한 이례적이다. 나는 너희가 하느님의 선하심에 대해 기뻐하기 바란다. 이곳에 베풀어진 여러가지 영적 은혜에 관해서 많은 이들을 잘못 인도한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여라. 그들은 계속해서 그렇게 하고 있다. 그들은 그렇게 하는 가운데 천상의 힘을 부정하고 있는 것이다. 너무 늦기 전에 그들의 양심이 잘못을 깨닫도록 기도하여라. 그들은 세상에서 중요한 직함을 가졌다 하여 자신에게 유리한 심판을 받지 못할 것이며 오히려 그들이 어떤 식으로 자신의 영향력을 행사했는지에 관해 책임을 지게 될 것이다.”

“이 선교사업과 이것이 나타내는 모든 것은 전부 영혼 구원에 관한 것이다. 이 선교사업은 지상 교회를 강화시키기 위해 세상에 존재하는 것이지 지상 교회와 경쟁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이제 나는 자녀들의 태도에 대해 애석해 하는 이들에게 말하겠다. 너희는 자녀들이 살아가면서 내린 선택들에 대해, 특히 그들이 자신의 구원에 대한 책임을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라면 더욱 실망할 수도 있다. 나는 너무나도 많은 내 자녀들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오류들을 본다. 이 오류들은 내 아들의 비통한 성심에 큰 슬픔을 안기며, 거룩한 성모의 성심 또한 비탄에 잠기게 한다. 그럼에도 천국은 그들을 잊지 않는다. 너희가 아는 이들과 너희가 모르는 이들을 위해서도 계속 기도하여라.”

“나는 내 신성한 사랑으로 오늘 너희에게 이 격려를 보낸다. 나는 항상 너희 마음에 귀를 기울이고 있다.”

+ 성경 구절 독서 (지혜 6:1-9):

임금들아, 들어라. 그리고 깨달아라. 세상 끝까지 통치하는 자들아, 배워라. 많은 백성을 다스리고 수많은 민족을 사랑하는 자들아, 귀를 기울여라. 너희의 권력은 주님께서 주셨고 통치권은 지극히 높으신 분께서 주셨다. 그분께서 너희가 하는 일들을 점검하시고 너희의 계획들을 검열하신다. 너희가 그분 나라의 신하들이면서도 올바르게 다스리지 않고 법을 지키지 않으며 하느님의 뜻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분께서는 지체 없이 무서운 모습으로 너희에게 들이닥칠 것이다. 정녕 높은 자리에 있는 자들은 엄격한 심판을 받을 것이다. 미천한 이들은 자비로 용서를 받지만 권력자들은 엄하게 재판을 받을 것이다. 만물의 주님께서서는 누구 앞에서도 움츠러들지 않으시고 누가 위대하다고 하여 어려워하지도 않으신다. 작거나 크거나 다 그분께서 만드셨고 모두 똑같이 생각해 주신다. 그러나 세력가들은 엄정하게 심리하신다. 그러니 군주들아, 내가 너희에게 하는 말을 듣고 지혜를 배워 탈선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라.

2018 년 12 월 30 일

대중을 위한 메시지

저는 (모린) 또다시 하느님 아버지의 성심이라고 알게 된 큰 불꽃을 봅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자녀들아, 나는 다가오는 새해에 사람들은 인위적 재난과 자연 재해로 고통을 받을 것이라는 사실을 너희에게 말해주러 왔다. 사리사욕을 위해 정략적으로 행동하는 이들에 관해서는 그 진실이 밝혀지게 될 것이다. 또한 너희 나라의 남쪽 국경의 장벽 건설은 조금씩 조금씩, 그러나 차근차근 진행될 것이다.”

“분별력 부족이라는 십자가는 점점 더 명백히 드러날 것이며 그것은 영혼들에게 구원이라는 희생을 치르게 할 것이다. 여러 나라들 간의 일치는, 불법적인 평화가 형성될 것이기에 사탄에게 유리한 쪽으로 이용될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내 진노로 가는 길을 열게 될 것이다. 세상의 마음의 왕인 물질주의는 더 많은 힘을 갖게 되고, 내 계명에 대한 순종은 고통 받게 될 것이다.”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 내게 가까이 머물러라. 한낱 인간의 약속에 속지 마라. 한 사람을 둘러싼 기적 같이 보이는 것들에 감동받지 마라. 그자는 지금도 이미 공개적으로 등장할 계획을 꾸미고 있다. 너희가 모든 상황 속에서 내 뜻을 본다면 너희에게는 언제나 너희 주변 사람들의 마음을 회심시킬 수 있는 시간이 있다.”

“자녀들아, 오늘 내가 너희에게 말해주는 것들을 미룰 수 있는 희망은 있지만 이것들을 완전히 없앨 수 있는 희망은 없다. 너희의 기도가 그 차이를 메꾼다.”

+ 성경 구절 독서 (2 테살 2:9-12):

그 무법자가 오는 것은 사탄의 작용으로, 그는 온갖 힘을 가지고 거짓 표징과 이적을 일으키며, 멸망할 자들을 상대로 온갖 불의한 속임수를 쓸 것입니다. 그들이 진리를 사랑하여 구원받는 것을 거부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느님께서서는 그들에게 사람을 속이는 힘을 보내시어 거짓을 믿게 하십니다.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자들이 모두 심판을 받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2018 년 12 월 30 일

대중을 위한 메시지

저는 (모린) 또다시 하느님 아버지의 성심이라고 알게 된 큰 불꽃을 봅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딸아, 오늘 나는 하느님의 자비심의 축일(2019 년 4 월 28 일)에 나 또한 하나된 성심의 별판에 올 것임을 내 충실한 도구인 네게 알려주러 왔다. 나는 예수가 발현하는 동안 ‘모든 민족의 아버지로서의 내 축복’을 내릴 것이다*. 축복이 내려질 때 내 아들이 그것을 네게 알려줄 것이다. 수많은 이들이 그 영향을 느끼게 될 것이다. 나는 내 가장 강력한 축복을 그곳에 모인 모든 이와 함께 나누기를 고대한다.”

** ‘모든 민족의 아버지로서의 축복’의 중요성에 관해서는 다음의 메시지들을 참조하십시오: 2017 년 8 월 7 일, 18 일, 22 일, 23 일, 24 일; 2017 년 10 월 9 일; 2018 년 8 월 11 일. 이 축복은 지금까지 단 세 번만 주어졌습니다: 2017 년 8 월 6 일, 2017 년 10 월 7 일, 2018 년 8 월 5 일.*

2018 년 12 월 31 일

대중을 위한 메시지

저는 (모린) 또다시 하느님 아버지의 성심이라고 알게 된 큰 불꽃을 봅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자녀들아, 지금 이맘때는 전통적으로, 사람들이 다가오는 새해를 축하하고 지난 해를 돌아보는 시간이다. 나는 거룩한 사랑의 복음 메시지가 지난 해를 평가하고 다가오는 새해에는 밝은 전망을 주기 바란다. 거룩한 사랑으로 살아낸 모든 순간 하나하나가 다 승리다. 거룩한 사랑으로 살아가는 미래는 결점을 극복하는 승리의 약속이자 기도와 선행의 모든 노력의 승리의 약속이다. 그러므로, 이것이야말로 너희가 축하해야 하는 이유인 것이다.”

“거룩한 사랑이 너희에게 가장 좋은 것 즉, 너희의 구원 외에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 내 부성적 성심으로 너희를 더 가까이 데려오게 하여라. 우리는 함께 진리 안에서 승리할 수 있으며 악 대신 진리를 선택하는 승리를 거둘 수 있다. 유혹이 너희를 좌절시키도록 내버려두지 마라. 그것은 너희의 주의를 다른 곳으로 돌리기 위한 사탄의 수작이다. 다가오는 새해에는 거룩한 사랑의 용감한 사도가 되어라. 내가 너희를 도울 것이다.”

+ 성경 구절 독서 (즈카 3:9-10):

“내가 예수아 앞에 놓은 돌을 보아라. 돌은 하나인데 눈은 일곱이다. 만군의 주님의 말씀이다. 거기에 내가 비문을 새기고 이 땅의 허물을 단 하루에 치워 버리리라. 그날에 만군의 주님의 말씀이다. 너희는 서로 이웃들을 자기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로 초대하리라.”